

월요광장



박 석 무

다산연구소 이사장·우석대 석좌교수

호남의 유학에 관심을 갖고 당시의 유학 발전에 큰 공을 세운 분들을 살펴보면, 15세기에 호남에서 큰 학자들이 많이 배출되어 대단한 업적을 이룩한 사실을 알게 된다. 영암 영보촌으로 낙향한 연촌 최덕지(1384~1455)와 태인으로 은퇴했던 불유현 정극인(1401~1481)이 선구적인 학문 활동을 하였고, 그 뒤를 이어 나주 출신이지만 처가 고을인 해남에서 강학을 했던 금남 최부(1454~1504)가 학파를 이룩한 학자로 이름을 날렸다. 최부와 동년배이지만 16세기 중엽까지 생존했던 지지당 송흙(1459~1547)은 15~16세기를 관통하는 학자로 그 문하에서 학포 양팽손, 면양정 송순 등이 배출되어 16세기에 만개하는 호남 유학의 터전을 굳게 다져 주었다. 송흙의 뒤를 이어서는 놀재 박상(朴尙:1474~

김인후와 유희춘의 스승 최산두

1530)과 신재(新齋) 최산두(崔山頭:1483~1536)가 나와 호남 유학의 큰 맥이 형성되었다. 최산두는 광양 출신이다. 30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살이로 사인(舍人)이라는 참으로 명예로운 직책에 이르렀으나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전라도 동북(지금의 화순)으로 귀양 와 14년을 지내며 크게 학풍을 진작시켰다. 또한 그의 문하에서 조선 최고 수준의 학자였던 하서 김인후(1510~1560)와 미암 유희춘(1513~1577)이라는 16세기의 대표적 성리학자들이 배출되었다. 최산두는 젊은 시절 점필재 김종직, 한훤당 김굉필 등을 사숙하여 학문을 익혔다. 14년의 귀양살이 이후 유배가 풀려 벼슬이 내렸으나 응하지 않고, 학문 연구와 제자들의 양성에 생애를 바치는 학자로 생을 마쳤다. 조광조와 뜻을 같이하다 탄압을 받은 의인들을 기묘병형이라 부르는데 당시 호남에는 대표적인 기묘사화 피해자가 있었으니 유희춘의 형인 유성춘, 윤선도의 선조인 윤구와 최산두가 그들이다. 이들은 문장과 학문으로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절의와 지조에 철저한 의리파여서 세상에서는 이 세 분을 ‘호남 3절’이라는 아름다운 호칭으로

부르고 있다. 최산두는 벼슬하느라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당대의 학자들과 교류했으니 조광조·김정·김구·김식·박상·기준·김안국·김정국 등 장장한 학자들과 어울리면서 나라를 걱정하고 세도의 변화에도 노력했다. 하지만 간신배들이 일으킨 사회에 걸려 은둔의 생활을 해야만 했으니, 의리를 지키다 보면 피해만 보는 현실은 언제나 그렇게 의인들을 불우하게 만들고 말았다. 최산두가 세상을 떠나자 제자 김인후는 스승의 학덕(學德)을 극도로 칭송한 제문(祭文)을 바쳐 애도의 마음을 간절하게 표현하였고 미암 유희춘 또한 뒷날 스승의 죽음을 애도하는 제문을 지어 뛰어난 인품과 학문의 깊이에 감탄을 금하지 못하는 뜻을 표현하였다. 16세기 호남의 대표적 학자는 하서와 미암, 일제 이항, 고봉 기대승, 사암 박순으로 압축할 수 있는데 이들 중에서 두 분이 최산두의 제자라면 최산두의 학문 경지가 어디쯤에 이르렀는가는 금방 짐작할 수 있다. 스승을 보면 제자를 알 수 있고 제자를 보면 스승을 알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최산두에 대한 일화가 많이 전해지는

데 대표적인 일화 하나가 있다. 15세에 ‘동강강목’이라는 책 80권을 지니고 석굴에 들어가서 2년간 수천 번을 읽어 완전히 외우고 나오니, 나뭇잎이 모두 강목의 글자로 보였다는 이야기다. 그만한 천재에 그처럼 골똥하게 연구하고 공부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니 그만한 학자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세상을 떠난 뒤 유문을 제대로 모으고 간행하는 일이 잘 못되어 대부분의 유문이 소실되었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문집이 제대로 간행되지 못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수백 년 뒤에야 후손들의 노력으로 문집이 나왔으나 너무 빈약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래도 최산두의 높은 학덕은 잊히지 않아 화순과 고향 광양에는 그분의 학덕을 추모하고 후학을 양성하기 위한 서원(書院)과 사당(祠堂)이 세워져 그만한 학자의 뒤를 덜 쓸쓸하게 하고 있으니 그 것만이라도 다행한 일이다. 화순에는 도원서사(道源書院)이 있고, 광양에는 봉양사(鳳陽祠)라는 사당이 있어 춘추로 제향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김인후와 유희춘을 가르친 스승인데, 기묘사화로 경륜을 펴지 못하고 은둔으로 일생을 마친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법조칼럼

혼돈을 지나 더 나은 사회가 되길



송 창 운

변호사

지난 2년간 벌어진 일이다. 2017년 3월 10일 현재는 만장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고, 3월 31일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2018년 4월 6일 1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같은 해 8월 24일 항소심에서는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2018년 3월 23일 구속 영장이 발부됐고, 그해 10월 5일 1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018년 2월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이 발부됐고,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

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 유예 4년의 판결이 선고됐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2017년 12월 15일 구속돼 2018년 2월 22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2018년 8월 24일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 1일 항소심 판결에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안태근 전 검사장은 지난 1월 23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월 24일 구속됐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 1월 30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명 등을 제외하고 일부 사람에 대한 내용만 간략히 적어봤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다. 여기에 등장하는 피고인들은 전직 대통령, 우리나라 최대 재벌 그룹 부회장,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전 충남지사, 경남지사, 전 검사장 등 그 면면이 화려하기 그지없다. 위에 열거되지 않은 쟁쟁한 인물들도 적지 않다.

피고인들의 이름만 보아도 위 판결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무게가 적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하나하나 우리 사회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었고, 그만큼 사회에 미치는 파장도 컸다. 그리고 이때만큼 우리 국민의 눈이 법원, 검찰을 주목했던 적이 있었나 싶다. 재판 결과는 판결이 선고되어야 할 수 있지만, 일부 판결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결론이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경우도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될 것이라 예상치 못했고, 안태근 전 검사장의 경우는 피해자와 그의 변호사마저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한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특검 조사가 부실했다는 평가에도 드루킹 감동원과 공동 정범으로 평가되어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정 구속을 예상한 사람은 아마 거의 없지 않았을까 싶다. 위에 열거한 판결들은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기에 그 판결 결과를 둘러싼 찬반 대립이 팽팽하고, 그 골도 깊어 보인다. 사법 농단 사태 이후 법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고, 자기들에게 불리한 재판 결과가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기에 상황은 더더욱 복잡하기만 하다. 혼란하고, 혼돈한 상황이다. 어느 정도 마무리된 사건도 있지만 사법 농단 재판의 경우 아직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고,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들도 적지 않기에 앞으로도 계속되는 판결에 온 국민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사회가 요동치지 않을까 싶다. 그렇지만 멈출 수는 없는 일이고, 매듭은 지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숨어 있던 잘못들을 모두 다 드러내 도려낼 수는 없겠지만 그간 쌓여온 폐단을 극복하고, 정의·공평·공정·자유 등의 가치가 한층 더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다. 많은 신화에서 ‘질서’는 ‘무질서, 혼돈’에서 태어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지금의 혼돈은 ‘전보다 더 좋은 사회’의 어머니가 될 지도 모를 일이다. 아니 꼭 그랬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는 폭풍우 치는 바다를 지나고 있는 중이니 눈부신 햇살과 햇살을 받아 빛나는 잔잔한 파도를 기대하며, 모든 일이 순리대로 그 결론에 이르렀으면 한다.

도시철도 2호선 이후 광주 도시 공간 정책

로 전환될 개연성이 높다. 이달 초 이웅섭 광주시장은 시의회 임시회에서 2019년 광주시 10대 핵심 사책 중 하나로 ‘도시철도 2호선 상반기 착공’을 발표했다. 도시철도 2호선을 시민의 삶을 변화시킬 बीच 있는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이에 따라 올해를 도시철도 준공 이후를 준비하는 원년으로 정하고, 광주 도시 미래상을 도시철도와 연계·검토하는 출발 시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도시철도 순환선이라는 도시의 뼈대가 보완되는 2025년까지 다음과 같은 정책 여젠다에 대해 단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우선은 도시철도 2호선이 광주시 도시 공간에 미치는 영향력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역사 인접 지역에 지역민의 이용도가 높은 대중 이용 시설을 집적시키고, 광장·공원 등 공공 오픈 스페이스를 역세권 내에 입지하는 논거를 찾아야 할 것이다. ‘압축 도시’의 실현을 위해 공공 재원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저성장 인구 감소 시대, SOC 수요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연구 과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두 번째로 도시철도 2호선 준공 이후에 광주시의 교통 체계, 생활권 설정 등을 새롭게 정비하는 정책 여젠다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2호선 순환선이 광주 도시 성장의 임계선 역할을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2호선 노선 내·외부의 도시 공간 이질화 가능성을 분석하고, 2호선 내부 도시 공간을 대상으로 충전형 도시 개발 방식을 유도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도시 정책의 근간이 되는 ‘2040 광주 도시 기본계획’이 앞으로 수립될 예정이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도시철도 2호선 관련 분석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세 번째로 도시철도 2호선에 찬성하지 않은 21.4% 지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하철 운영 비용 확대, 미래 교통수단과의 연계 부족, BRT·트램 등 대중교통 선호,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미흡 등이 반대의 이유로 논의되었다. 이중에서 지하철이 운행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어떻게 공공 교통 체계를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지가 반대 의견을 상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도시철도 운영 노선을 중심으로 하는 간선버스와 지선버스, 마을버스 연

계 체계를 구축하고, 버스사각지대에 대한 수요 응답형 버스 도입을 통해 도시철도와 대중버스의 유기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책을 상시적으로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시장 직속의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도시철도 2호선과 연관된 도시 공간 정책을 설정하고 도시 계획의 틀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 시의 유관 기관 및 지역 거버넌스 영역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단계적으로 방향 설정을 해 나가는 것이 향후 시행착오를 줄이는 지름길이다. 2025년까지 남은 6년여 동안 도시철도 2호선과 광주 도시 공간 정책 여젠다를 발굴하고 관련 연구와 논리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과정은 단기간에 끝내기 보다는 사회적 여건과 시간의 흐름을 읽어가면서 체계적인 연속성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오랜 진통 끝에 시작하는 만큼, 단순한 교통수단을 확장하는 것에 국한하지 말고 광주의 도시 공간 정책을 같이 고민하면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社 說

맥쿼리 ‘혈세 착취’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맥쿼리 한국인프라투자자(이하 맥쿼리)가 지난 2012년부터 7년간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과 3-1구간에서 쟁건 이자와 대출금 원금 등이 투자 약정금 규모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와 맥쿼리 간 불합리한 협약 탓에 맥쿼리에 과도한 수익을 안겨 주고 있는 것이다. 광주일보가 맥쿼리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맥쿼리는 제2순환도로 1구간에서 2568억여 원, 3-1구간에서 801억여 원 등 모두 3370억여 원을 이자와 대출금 원금으로 쟁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금액은 양 구간의 최초 투자 약정금 2925억 원을 훨씬 웃도는 것이다.

맥쿼리는 1구간 운영 업체인 광주순환도로투자(주)의 지분 100%, 3-1구간을 운영하는 광주순환(주)의 75%를 갖고 있으며 이들 업체에 연 10~20%의 고금리 자금을 빌려주고 매년 수백 억원의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고 있다. 그 원천은 광주시가 운영 업체에 매년 지급

하는 재정 지원금과 시민들이 낸 통행요금이다. 하지만 1구간 계약 기간이 2001년부터 28년간, 3-1구간은 2004년부터 30년간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막대한 혈세가 투입돼야 한다. 더욱이 1구간은 광주시가 지난 2016년 재정 지원금을 줄이기 위해 변경 협약을 체결했음에도 맥쿼리 측의 수익은 되레 증가해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착취 구조가 지속되면 제2순환도로에 대한 시의 재정 지원은 그야말로 ‘밀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닐 수 없다. 광주시는 맥쿼리 측과 사업 재구조화 협상에 적극 나서 시민의 혈세 낭비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올해 기존 대출금의 만기가 도래하는 3-1구간의 경우 맥쿼리가 또다시 고금리 자금을 대어줘 수익 극대화를 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5·18 가짜 뉴스 유포 막을 법 제정 절실하다

극우 인사 지만원(77) 씨로부터 ‘광수’ 36번, 최룡해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으로 지목된 양동남(58) 씨는 1980년 전남도청을 마지막까지 사수하다 체포돼 조사를 받을 때도 북한군 이야기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광수’는 ‘광주시민군으로 위장한 북한 특수군’을 지칭하는 지 씨의 표현이다. 앞서 지 씨가 광수로 지목한 이들의 안면 분석을 했던 최창석 명지대 정보통신과 교수도 “객관적 비교까지 했지만 역시 아니었다”고 확인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가짜 뉴스는 인터넷을 통해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5·18과 관련된 가짜뉴스가 시작된 곳은 대부분 지만원 씨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였다. 지 씨가 올린 글과 사진 및 파일 등은 그대로 개인 블로그나 개인 방송으로 옮겨진다. 이처럼 무제한 복제·유포되는 가짜 뉴스는 다시 카카오톡 등 SNS로 공유되는데 이를 제

재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의 활동은 미미하기만 하다. 실제로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한 5·18 관련 게시물에 대한 시정 요구 조치는 모두 395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마침 온라인상에서 5·18 가짜뉴스가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최근 여야 동료 의원 16명의 공동 발의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5·18 관련 가짜뉴스를 불법 정보로 규정해 해당 정보를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근거도 없는 황당한 가짜 뉴스도 안이하게 대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사실상 둔감할 수 있다. 5·18민주화운동을 폄하하고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 발의된 법 개정안을 서둘러 통과시켜 악질적인 거짓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확실하게 금지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역사가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면, 기억은 죽은 자와 산 자의 대화이다. 역사가 공식적 대화라면 기억은 친밀한 대화이다.” 임지현 서강대 사학과 교수는 ‘기억전쟁’이라는 책에서 희생자의 경험과 목소리, 다시 말해 기억과 증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사실 증언은 불안전하고 더러 부정확한 탓에 홀로코스트 부정론자들이나 일본 우익들에게 줄곧 무시돼 왔다. 그럼에도 희생자들의 증언은 문서와 기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진정성’을 지닌다는 면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해외에서 ‘평화의 소녀상’이 가장 먼저 들어선 곳은 미국의 글렌데일이라는 중소 도시다. 우리와 특별한 연고가 없는 그곳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이 건립된 데에는 까닭이 있다. 해외에서 가장 큰 아르메니아 공동체가 있는 지역이 글렌데일인데, 아르메니아인들은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걸쳐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학살을 당한 ‘기억’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최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이 많은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다. 이종명·김순례·김진태 의원은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은 물론 학살의 참상을 조롱하는 반인륜적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 ‘5·18 망언’을 되풀이하는 지만원 씨와 극우 인사들에게 ‘증거’나 사실 여부는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여론의 호도를 통해 5·18의 진실을 왜곡하고 정치적 이익을 꾀할 뿐이다.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독일의 사례 등을 토대로 우리도 입법화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명 ‘하우슈비츠 거짓말 법’이라고 불리는 형법 제130조는 나치 지배하에 벌어진 반인도적 범죄를 부인하거나 피해자 존엄을 침해하는 언행도 범죄로 규정한다. 고소 없이도 기소가 가능한 것은 역사적 과오를 반성하는 데서 나아가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내에는 무고한 시민을 학살하고 정권을 찬탈한 세력의 DNA가 흐른다. 그들이 누리는 혜택은 일정 부분 ‘피 묻은 과거’에서 비롯됐다. 쿠테타 세력으로부터 전이된 망언과 왜곡을 끊기 위해선 그 어느 때보다 희생자들의 기억과 증언이 절실하다. /박성천 문화부 부장 skypark@

기 고



나 강 열

광주전남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장

78.6%, 이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과정에서 ‘도시철도 건설’에 손을 들어준 비율이다. 시민 참여단 250명 중에서 243명이 표결에 참여하여 191명이 찬성한 결과이다. 이를 토대로 민선 7기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추진 정책의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다. 도시철도 2호선이 완공되면 광주의 도시 공간 구조는 어떻게 바뀌게 될까? 도시내에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이동시키는 교통 시설이 입지하면 새로운 물류의 흐름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도시 공간에 다양한 형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례로 도시철도 환승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 거점이 생기거나 역사(驛舍) 주변의 토지 이용이 고도화되는 등 광주의 도시 공간 구조는 새로운 양상으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 (국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64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여 론 매 체 부 220-0652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3 체 육 부 220-0697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FAX 02-773-9331)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